

성모님께서 주신 7월 25일 메시지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이 은총의 시기에 너희들이 개인적인 기도를 통하여 하느님께 더욱 더 가까이 다가 오라고 부른다.  
 휴식의 시간을 잘 활용하도록 하며 너희들의 영혼과 안목이 하느님과 함께 하는 안식 안에서 머물도록 하여라  
 자연 속에서 평화를 발견하여라.  
 너희는 그 안에서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감사드릴 수 있게 되며 그러면 너희는 너희의 마음 안에서 기쁨을 찾으리라.  
 나의 부름에 응답하여 주어 고맙다.



하느님 아버지, 저희에게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분을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구세주이신 메시아로써 이 세상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수난과 십자가 그리고 돌아가심에 대하여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예수님께 가까이 올 수 있고,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달으며 이러한 길에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도록 그분의 사랑이 저희를 가르치시는 은총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오 아버지, 당신께로 성모님께로 교회에로, 그리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로 나아가는 길에서 저희를 괴롭히고 방해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기 위한 힘을 성모님과 함께 청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우리의 작은 희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성모님과 함께 당신께 청합니다. 또한 우리가 당신 사랑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기 위하여 삶속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묵상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당신의 지혜와 사랑의 영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오 아버지! 믿음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 특히 믿음과 희망을 잃고 고통을 받고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믿음의 선물을 당신께 청합니다. 하느님, 당신 앞에 모든 교

# 메주고리예

Medjugorje

제8호

August, 2001



발행인 : 김한기 시몬 신부    편집인 : 남홍익 그레고리오

평화의 모후 센터 U.S.A.

회와 당신의 이름으로 이 시간 교회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 교황님, 모든 주교들과 사제들 그리고 단체의 구성원들을 봉헌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떠났던 모든 사람들, 교회에 반대하여 비평하고 비난하고 싸웠던 모든 사람들이, 이 기간 동안 교회가 그 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즉 그들의 마음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당신 앞에 그 모든 사람을 봉헌합니다.

< 이하의 내용은 본지 3 페이지에서 계속됩니다. >

## 구원사에 나타난 성모 마리아



이종호 신부  
체리힐 본당 주임

**성서**의 첫 페이지를 넘기면 창세기 일장 일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 내셨다.” 이 말씀이 시작되면서 우주의 기원과 그리고 인간 창조가 이어지고 “하나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고 매듭을 짓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1장 26 절에서는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 또 짐짐승과 들짐승과 땅위를 기어 다니는 모든 길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 내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어 내심으로 대 창조사업을 마치시고 2장 2 절에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고 기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아름다운 창조사업을 먹칠한 것이 3장에서 나오는 인류의 타락이요, 하와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과 교만에 눈이 어두워 죄를 짓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면서 노아 때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홍수로 쓸어버리고 새 하늘 새 땅을 다시 허락 하시지만 인류는 계속 죄의 심연속으로 더 깊이 빠지는데 사도 바오로의 말씀에 의하면 “그러나 때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의 몸에서 나시게 하셨다.” -갈라디아서 4, 4- 고 하시면서 “그분은 인성으로 말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이요, 거룩한 신성으로 말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어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 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1, 4- 고 하십니다. 이제 마태오 복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 -마태오 복음 1, 18 참조 - 시작되면서 마리아의 복음이라고 감히 부쳐보는 루카복음에 가서는 그 시작을 성모님과 천사 가브리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의 나눔으로 아로 새겨가고 있습니다. 루카복음 1장 26 절에서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이제 루카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를 잘 읽어 내려가노라면 성모 마리아께서 인류 구원사를 다시 쓰게하신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으시는 전능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성모 마리아님께는 천사를 통해서 당신 계획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시고 세부 계획까지 설명을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총을 가득히 받으셨습니다. 이제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으실 터인데 이름을 예수 라고 하십시오 그 아기는 위대한 분이 되시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우십니다.” 물론 마리아께서는 “저는 처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반문하게 되었지요. 그 때 천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되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겸손과 순종, 그러니까 하와의 불순종과 교만으로 하나님의 창조사업이 죄로 얼룩진 것을 성모님의 겸손한 순종,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뤄지기 바랍니다.” -루카 1, 38- 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알리기 위하여 1장 1절에서 창세기 1장 1절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한 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 요한복음 1, 14 -

자, 이제 위의 모든 말씀을 되새기면서 성모 마리아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고귀하신 분인지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하느님께서 성모님을 얼마나 들어 높이셨기에 그분은 응답을 기다리셨고 성모님을 통하여 구원 계획을 하시려고 하셨는지... 한 마디로 성모 마리아는 높이 찬양 받으심이 당연 하시며 인간 범죄 이전에 에덴동산에 있던 하와보다 한없이 아름다우시고 뛰어난시며, 깨끗하신 분인가를 깨닫게 해 줍니다. 그래서 루카복음 1장 46절에 보면 성모님께서도 “이제부터는 온 백성이 나를 복되다 하리니”라고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러한 성모 마리아를 찬미하고 온갖 찬사와 영예를 드림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평생 동정으로 주 예수님을 낳으시어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심을 고백함과 하느님의 은총을 가득히 받으시어 원죄에 물들이 없이 잉태되셨을 뿐 아니라 온갖 죄와 유혹에서도 자유로우시고, 인간의 생로 병사와 그리고 그 육체의 썩음이 죄의 결과라고 한다면 당연히 죄의 티끌도 없으신 마리아께서 우리처럼 죽어 땅에 묻히고 그 육신은 썩어 한 줌의 흙이 되는 자연의 이치에서 해방되어 사도 바오로의 말씀대로 “죽음의 독침은 죄” - 1고린



토 15, 56 - 이기에 교회는 비오 12세 교황을 빌어 장엄하게 “원죄에 물들지 않고 평생 동정이셨던 하느님의 모친 마리아가 지상의 생애를 마치신 뒤 영혼과 육신이 함께 천상의 영광으로 들어 올림을 받았다는 것은 하느님 으로부터 계시된 신앙의 진리이다.” 라고 선언하게 한 것이 1950년 11월 1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2천년 동안 마리아께 대한 신앙 고백이 그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전지 전능하신 하느님,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느님,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

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하여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느님 그분은 성모 마리아를 당신의 협력자로 부르시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조화있게 계획 하셨으니, 성모님은 하느님의 구원사를 다시 쓰게 하신 분이라고 감히 고백합니다.

성모 마리아,  
하느님의 지극히 아름다우신 딸이시며  
성모 마리아,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거룩한 어머니시며  
성모 마리아,  
하느님의 영이신 성령의 지극히 깨끗하신 짝이심을 고백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M**

<표지에서 이어지는 내용>

임금님! 서로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사랑이 없는 모든 사람들이 화해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당신의 영으로써 그들의 화해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치유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성모님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성모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은총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병고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젊은이들과 이시간 당신의 사랑과 자비를 믿지않는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모든 것이 선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어주시고 영원한 삶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고통의 길을 통하여 저희 모두가 당신과 당신의 영광에 다다를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저희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1998년 1월 25일 슬라브코 신부님의 기도 -

## 어린 목격증인과의 인터뷰

1985년 12월 18일 발간



웨인 와이블

루터파 교회의 신자이며 신문사 발행인, 컬럼리스트로 활동하던 웨인 와이블 씨는 성모님께서 발현하고 계신 메주고리에에 관한 비디오 테이프를 보던 중 강한 내적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 후 성모님의 발현과 메시지 전파에 헌신하게 되면서 '메주고리에' '선교사명' '메주고리에 추수' 등의 책을 썼으며, 지금까지도 계속 영문판 메주고리에 소식지를 펴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개되는 내용은 성모님의 부르심을 받은 웨인 와이블씨가 1985년 12월 4일부터 발간한 타블로이드 요약 판에 게재하였던 기사로서,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머틀비치 지방 신문에 6개월에 걸쳐 개별적으로 발간된 것을 본지에서 계속하여 번역문으로 소개합니다.

유고슬라비아의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신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성모 마리아에 관한 기사를 쓰기 시작한 지가 벌써 3주일이 지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내게는 이 기사가 글로 옮기기엔 몹시 어려운 주제였다. 하지만 무언가 가치 있는 일을 했다는 점에서 가장 만족하기도 한 기사이다. 기자라는 직업에서 볼 때 나는 독자들이 나의 기사에서 객관적인 정보만을 얻기를 원한다. 그러나 또 한 편 나 개인적으로는 이 기사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 넣어 하느님과 동료 인간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것이 이 기사를 크리스마스 시즌에 내보내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주일은 두 어린 목격 증인들과 가졌던 인터뷰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 여기에 적힌 내용은 어린 목격 증인들 입에서 나온 말들을 녹음하였다가 후에 글로 옮겨 적은 것들이다. 칼럼에 적을 수 있는 불량 때문에 인터뷰 내용 전부를 다 실지 못하는 걸 유감으로 생각한다.

(4) MEDJUGORJE

블리슈치 신부 : 미리아나, 오랫동안입니다. 미리아나에게 나타나신 성모 마리아님에 대해 특별히 이야기를 나누고 싶군요.

미리아나 : 어늘까지 18개월 동안 성모님을 만나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잘 아는 사이 같아요. 그분은 어머니처럼 절 사랑하시고 그래서 저도 마음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 할 수 있게 되었지요. 저는 천국, 연옥, 지옥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했다고는 하지만 영원히 벌 받게 하는 일은 자비하신 하느님께서 하실 일이 아니질 않느냐고 물었지요. 잘못을 범한 사람은 물론 감옥에 가야 하지만 거기서 죄 값을 치른 후에는 용서 받아야 된다고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영원한 지옥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성모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느님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기 시작하다가 그 다음엔 자꾸 하느님을 저주하게 된 그런 사람들만 지옥에 간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 자신이 지옥의 일부분이 되고 마침내 그들 자신이 그 곳에서 구원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영원히 그 곳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이지요. 성모님께서는 연옥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에 가까운 단계에서 시작해서 천국에 가까운 단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연옥을 헤매는 죽은 영혼들은 성인 축일에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크리스마스날 가장 많은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신부 : 당신은 왜 하느님께서 지옥을 마련해 두셨는지 물어 보았습니까?

미리아나 : 아니요. 그렇지만 친척 아주머니(백모) 한 분과 그 점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아주머니께서는 하느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하느님께서 어떻게 지옥 생각을 하시게 되었는지 성모님께 여쭙어 보겠다고 했지요.

신부 : 미리아나, 당신 말에 의하면 그 이유는 간단하군요. 이 세상에서 하느님을 거역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죽은 후에도 결국 계속해서 하느님을 대적하며 지옥에서 산다는 말이지요?

미리아나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것일까 그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구원을 원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지요. “만일 그들이 지옥에서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다고 해도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지 않으십니까?” 하고 여쭙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기도하지 않는단다. 대신 모든 일에 하느님을 원망만 한단다. 사실 그들은 지옥의 일부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생활에 아주 익숙해져 있다.” 하고 대답해 주셨고 그들은 하느님께 화를 내고 그래서 고통을 받지만 하느님께 기도하기를 거절합니다.

신부 :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거절한다구요?

미리아나 : 지옥에서는 한 층 더 주님을 증오한다고 해요.

신부 : 연옥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자주 기도하는 영혼은 경우에 따라서 지상에 살아있는 사람들과 의사 소통이 허용될 수도 있는데, 지상에서 올려지는 기도(연옥 영혼을 위한 기도)의 공덕을 죽은 이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언젠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습니까?

미리아나 : 예 그렇습니다. 죽은 이들 자신들을 구하기 위하여 또한, 기도를 하지 않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지상에서 기도를 봉헌하지요. 이런 망자들을 위한 구원 기도는 연옥에 머무는 영혼들에게 큰 위로나 힘이 되며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신부 :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죽은 후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하여 성모님께서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미리아나 : 최근 이 문제를 여쭙어 보았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영혼들은 연옥으로 갑니다. 또한 지옥으로 가는 영혼도 너무 많습니다. 천국으로 직행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신부 : 천국으로 가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까?

미리아나 : 네 그렇습니다.

신부 :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대해 물어보았습니까?

미리아나 : 아니요. 그렇지만 아마도 이런 것이 아닐까요? 하느님께서서는 위대한 신앙인을 찾고 계시는건 아니니까 그냥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며, 생활 속에서 평화를 누리고 살면서 악한 생각이나 천박한 생각, 거짓

스러운 생각을 하지 않는것,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부 : 그것은 당신의 생각, 당신의 해석일 뿐인가요?

미리아나 :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성모님과 이야기를 나눈 후에 얻은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기적을 행하거나 엄청난 통회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은 욕심부리지 않고, 단순하지만 평온한 삶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부 : 천국, 연옥과 지옥의 문제 말고도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은 없는지요?

미리아나 :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즈음 사람들은 사제들 때문에 자신들의 신앙을 시험받는 경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제가 잘못하면 하느님은 계시지 않다고 결론지어 버리는 것이지요. 성모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제를 정죄하거나 그의 사생활을 조사하러 교회에 다니지는 말라고, 너희들이 교회에 가는 것은 사제로부터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께 기도하려 가는 것이다.” 라고 이것을 꼭 사람들에게 분명히 설명하라고 하셨습니다. 성직자들 때문에 신앙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귀는 하느님을 대적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좋을 때만 주님을 믿는다고 마귀는 말합니다. 그래서 나쁜 일이 생기게 되면 사람들은 믿기를 그치고 그것을 주님 탓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아예 주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 것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서는 마귀가 틀렸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마귀에게 1세기라는 시간을 허락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마귀가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말입니다. 마귀는 20세기를 자신들의 큰 활동 시기로 선택했다고 합니다. 오늘 날, 우리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모두들 불만에 차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참아주지 못합니다. 이혼과 임신 중절 횡수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이것들도 마귀들이 꾸며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신부 : 그렇다면 이런 행동들이 말하자면 그들이 마귀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지만 마귀가 그들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미리아나 : 마귀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마귀의 영향권 아래 있다는 뜻이지요. 그렇지만 실제로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막기 위해서는

## 부르심을 받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 분은 말씀 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 기도와 가족이 모여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족이 모여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각 가정에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성물(십자가 또는 성상 등)을 놓고 정기적으로 온 집안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해야 합니다. 성모님은 또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조그만 마을에서도 볼 수 있는 결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 곳 메주고리에에도 세르비아인(세르비아 정교회), 회교도, 가톨릭 교도들은 서로 분열 대립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성모님은 항상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한 분 뿐이라는 것을, 우리 사람들이 분열 상태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자기 자신과 똑같이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 신자라고 할 수 없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해서도 안됩니다.

신부 : 회교가 좋은 종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미리아나 : 이 점에 관해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특히 작은 마을들 중에서’ 종교간의 대립을 설명하셨고, 이런 것을 극복하도록 원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종교도, 자기가 갖고 있는 종교처럼 존중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신부 : 오늘날 마귀가 위력을 발휘하여 활동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 점에 관하여 성모님께서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귀는 어떤 사람을 통하여 또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주로 모습을 드러내니까?

미리아나 : 분열이 일어날 때는 주로 정신력이 약한 사람 쪽에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에나 존재하며 마귀는 쉽게 그런 사람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좋은 수녀 같은 사람들 속에도 들어가지요. 마귀는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을 자기편으로 바꾸어 놓기를 좋아

하기 때문이지요. 글썄,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제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셨지요. 어쨌든 마귀는 하느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을 자기편으로 끌어 들이려 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신부 : 미리아나 친구들 중 하나가 말하기를 큰 표징이 나타나기 전에 세 가지 비밀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될 것이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나머지 비밀은 한 가지씩 차차 밝혀지는 것입니까? 이 외에 말씀하신 것은 또 없습니까?  
미리아나 : 그런 것이 아니고 대강 이런 것입니다. 우선 몇가지 비밀들이 밝혀집니다. 단지 몇 개만 밝혀지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에 나타나셨던 성모님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후에야 사람들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큰 표징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표징은 그라자반 산 십자가에 나타날 것인데 야콥의 말에 의하면 이 곳 시장님이 제일 먼저 언덕에 올라갈 것이라고 한 것은 사회적으로 높은 직책을 맡으신 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변화되기 위한 계기의 장소로 그 표징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표징이 나타나면 사람들도 언덕으로 달려가 기도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 모두들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고 내가 성모님께 여쭙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라고 그분은 대답하셨지요.



기도중에 성모님을 뵈고 대화하는 미리아나

거런데 얼마 전 다시 똑같은 질문을 드렸더니 “시간이 남아 있을 때 변화 하라고 해라.” 라는 말씀 뿐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만 된다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신부 : 비밀에 관해서는 성모님께서 허락 하시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까?

미리아나 : 그렇습니다.

신부 : 성모님께서서는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는 그 날을

대비해서 준비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까?

미리아나 : 네,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사람들더러 영적으로 무장해서 그 날을 맞을 준비를 해야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라고 하셨으며 사람들은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내일 죽을 수도 있다고 하셨지요. 지금 당장 하느님을 마음속에 맞이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지요. 죽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믿는 이들은 평화속에 죽음을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 사람은 죽음에 앞서 주님께서 그들을 다 맞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신부 : 그것은 완벽한 변화, 곧 하느님께 완전히 의탁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까?

미리아나 : 그렇습니다.

신부 : 미리아나는 18개월 동안 성모님으로부터 10가지의 비밀을 받았는데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고 전하겠습니까? 비밀은 아직 공개할 시기가 아니라면 그대로 물어두고, 신부 주교, 교황께 무엇을 전하고 싶습니까? 성모님께서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미리아나 : 우선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이야기 하지요.

신부 : 그렇게 해 주면 좋겠군요.

미리아나 : 크리스마스 이틀 전 성모님께서 제게 말씀 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마지막으로 제게 더 이상 나타나시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난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크리스마스날 그 분은 저와 45분간 함께 계시며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성모님과 함께 그동안 성모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신 모든 것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변화되어라.” 여전히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을 때 변화해야 한다.” “주님을 떠나지 말아라. 너의 신앙을 지켜라. 모든 것을 다 버리더라도 신앙만은 굳게 지켜야 한다.” 그리고 성모님께서서는 아주 귀중한 선물을 제게 주셨는데 성모님은 매해 제 생일날 찾아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려울 때도 찾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일상 생활에서 오는 어려움 같은 것이 아니라 내가 아주 참기 힘들때에 도와주시러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모님의 매일 찾아주심 없이 살아야 합니다. 나도 여러분께 성모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되풀이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하느님을 저 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외의 모든 것은 버리십시오.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신부 :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위험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미리아나 : 마음으로부터 하느님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성모님께서서는 독일, 스위스, 그리고 오스트리아 사람들의 신앙이 매우 약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곳 사람들은 성직자들을 본받아 신앙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스코나에 갔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자가 죽어가면서 남긴 돈으로 양로원을 지어 달라고 어떤 신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신부는 그 돈으로 양로원 대신 호텔을 지어 개인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물론 그 곳 사람들은 더 이상 하느님을 믿지 않게 되었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점은 성직자의 사생활을 시시콜콜이 따져보며 우리들의 신앙과 결부시키지 말아야 하며 성직자의 입을 통해 나오는 하느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부 : 인터뷰를 마치기 전에, 더 하고 싶은 말은 ?

미리아나 : 성모님께서서는 저 개인에 관한 이야기도 몇 가지 해주셨습니다. 그 분은 여러가지 일들에 대해 제게 충고도 해주셨습니다. 말을 마치신 후, “하느님의 평화 안에서 살아가거라!” 라고 하셨습니다.

신부 : 어린 목격 증인들 중 다른 아이들이나 발현에 관한 일을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까?

미리아나 : 성모님께서서는 내가 다른 아이들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나더러 다른 아이들을 도와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며 이야기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일이 쉬워질 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항상 일치하여 함께 있으라고 하셨어요.

신부 : 개인적으로 또는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실 새로운 계획이나 발현 같은 것은 언급하지 않으셨습니까?

미리아나 : 우리 여섯 아이들 각자가 10가지 비밀을 알게 될 때 성모님께서서는 더이상 그 아이들에게 나타나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M**

<다음호에 제 4부가 계속됩니다.>



메주고리에 발현을 통하여 수없이 많은 은총을 주신 성모님께서 발현 20주년기념 미사중에 또다시 놀라운 사건으로 우리를 찾아 오셨습니다. 현지의 임마누엘 수녀님께서 보내오신 자료를 소개합니다.

## 놀라운 은총

40세의 마리나 이반코비치 수녀는 목격증인 마리아 부모님의 이웃에서 마리아보다 몇 해 먼저 태어났습니다. 1981년 6월 24일 성모님 발현이 시작되고 2개월 후 그녀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느껴 20세 나이에 프란치스코회 수녀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오빠는 공산당원들에게 체포되어 요조 신부님과 함께 감옥살이를 했는데 그 죄목은 단지 크리자밭 산정의 십자가가 회전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마리나 수녀는 목격증인 비스카와 이반과 친척 관계였고 발현산 밑의 마을 비야코비치에 살고있는 대부분의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겸소하고 신앙이 매우 깊었습니다. 그녀는 솔직하고 명랑하고 건전하며 부지런히 일했으며 상식이 풍부했습니다. 그 수녀는 현재 뉴욕 시에 있는 크로아티아 공동체인 성 치릴 그리고 성 메도디우스 성당에서 종교 교육, 크로아티아 언어교육 그리고 성가대의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마리나 수녀는 이번 여름을 그녀의 부모님과 함께 휴가를 보내기 위해 메주고리에 와 있었습니다.

마리나 수녀는 성모님 발현 20주년 기념 미사가 성 야고보 성당 안팎에서 진행되는 동안 야외 제대 제의실에서 다른 수녀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273명의 신부님들이 5만 명으로 추산되는 순례자들을 위해 야외 합동 미사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많은 순례객들은 원형 제대를 둘러싸고 성당 잔디밭을 뒤덮고 거의 큰길까지 차 있었습니다. 수녀가 원형 제대 밑에 있는 제의실에서 미사 준비를 하고 있는 사제들을 돕고 있었는데 오 크실리아 라는 수녀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지만, 마리나 수녀는 생각하기를 이 교회 안에서는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곤 하니까 하며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분 후, 수녀는 불일이 생겨 성당 내에있는 작은 제의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성가대로 통하는 문틈으로 큰 환호소리가 교회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수녀는 문을 급히 열어 보았습니다.

교회는 사람들로 꽉 차 있었고 많은 신자들은 시원한 구석을 찾아 확정기로 들려오는 미사 예절과 기도를 경건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성가대 석에서 그녀는 본당 프란치스코회 사제인 브란코 신부님이 성가대 오른 편에 있는 성모상 옆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을 진정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은 그 성모상 쪽으로 손을 뻗치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옷차림으로 보아 그들의 대부분은 크로아티아 사람들로 보스니아 중부에서 온 순례객들이 많았지만 기념행사에 참여코자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마리나 수녀는 궁금한 나머지 성가대 계단을 내려와 그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 미사가 시작되었으니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도록 부탁하고 있었는데 그 때 여러 나라 말로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수녀가 사람들 사이에서 있다가 우연히 성모상 쪽으로 머리를 돌렸을 때 놀랍게도 성모상 뒤쪽이 눈이 부시도록 하얗게 되더니 불빛이 번쩍거리며 어떤 예감으로 온 몸이 떨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많은 순례객들의 감동에 젖은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마리나 수녀는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일으킨 반응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하느님! 무슨 일이옵니까?”

그 불빛은 제대 위의 불빛과는 달랐습니다. 그 백색 빛은 맥박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형체가 나타나더니 반짝거렸습니다. 바로 하느님의 어머니이셨습니다. 그분은 입체적으로 서 계셨는데 정말 살아계시는 성모님이셨습니다. “내가 만일 가까이 있었더라면 그분을 만져볼 수 있었어요.”라고 마리나 수녀는 말하면서 성모님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성모님은 금색 테를 두른 베일을 이마 위까지 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 얼굴은 광대뼈가 조금 나오고 양손을 몸 가까이에서 위로 벌리고 계셨으며, 우리가 초상화에서 볼 수 있듯이 양손을 내밀고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입은 꼭 다무시고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각 나라 말로 선포되고 있었고 야외에서도 그 복음말씀이 원형 제대에 설치된 확정





기를 통하여 들리고 있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기도를 하고 계시는 듯이 아래를 보고 계셨습니다. 마리아 수녀는 성모님께서 성모상 뒤쪽에서 성모상 위로만 보였기 때문에 성모님의 상체만 볼 수 있었는데 그분은 반짝이고 있었다. 마리아 수녀는 자기 눈을 의심할 만큼 아름다우신 성모님을 보면서 “참으로 아름답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녀는 성모님께서 얼마동안 계셨는지 의식할 수 없었으나, 아마도 몇 초 동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모님은 뒤로 물러나시며 사라지셨습니다. 마리아 수녀는 행복에 도취되어 제의실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순례객들은 성당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현상이 미사가 시작되면서 네 번인지 다섯 번 있었는데 마리아 수녀는 성모님께서 마지막으로 나타나신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다음날 목격증인 이반이 마리아 수녀와 전날의 일을 이야기 했는데 보스니아 중부지방 슬라브스키 그로드에서 온 순례객들도 성당에서 그 시간에 성모님을 보았다고 했고 스위스에서 온 독일계 순례객 그룹 전원이 성모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당 뒤쪽에 서있던 순례객들은 아무 것도 보지는 못했고 성모상 가까이 서 있던 사람들의 소동 소리만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몇 시간 후, 마리아 수녀가 그녀의 동생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체험담을 나누고 있었을 때도 떨면서 기쁨에 넘쳐 있었습니다. 그 수녀는 틀림없이 성모님을 보았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성모님을 본 사실을 목숨을 걸고 증언합니다. 나는 20년 전 성모님의 발현이 시작된 후 얼마 안되어 수녀원에 들어간 나에게 성모님께서 발현 20주년 기념일에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고 마음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무한한 행복을 느끼는 동시에 기도를 더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마리아’라는 이름이 더욱 소중하고 고맙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나는 이 사실을 넘치는 기쁨으로 증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에도 성모님께 기도를 했지만 지금은 그 기도가 더욱 소중하고 아름답게 느껴지며 더욱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성모님께서는 나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나는 지속되는 놀라움으로 ‘그분께서 살아계셔’ ‘그분께서는 정말 살아계신거야’ 라고 자신에게 말 합니다. **M**

## 메주고리예를 다녀와서

지중해  
아드리아 해 건너 편  
자그마한 촌락  
한 구운데 우뚝 서 있는 야곱성당  
들어선 길목에 서서 우리 기다리는 천상 어머니

여기 이곳은  
저 높은 하늘 향기  
그윽히 머금의 평화의 땅  
수많은 순례자들 찾아드네

사랑의 우리 엄마  
오늘도 평화의 메시지  
한아름 실어  
은혜 베푸시어 여기 찾아오시네

이땅의 자녀들  
일컫낸 수 많은 교우들  
당신 성심으로 감동  
우리에게 외치시는 메주고리예 성모님

평화. 평화. 평화!

선하신 하느님의 작품들  
그 빛을 잃어간지 오래인 듯  
그렇기에  
이곳은 회개의 땅

남자 여자 늙은이 젊은이  
발현산과 십자가산  
오르내리며  
성화(聖化)의 길 닦으며 눈물을 짓는대네

19년 전 성모님 발현 알리는 선견자들  
그들의 외침, 표정 그리고 손짓  
모두가 은혜  
은혜의 시간인 것을

우리게 평화를 안겨주시길 원하시는 어머니  
더 이상  
불신과 죄의 어둠과 전쟁을 떠나  
함께 살라하시는 당신의 호소

아! 메주고리예  
네가 있음으로  
온 세상이 보다 평화될수 있어야 할텐데

< 정 토비아 / 프란치스코회 수사 신부 >



## 성모님의 미소를 보며....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 보니 어떻게 살아왔나 하는 마음에 새삼스러이 눈물만 납니다.

하늘아래 머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 가슴아픈 사연이 없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마는 너무나 힘들었고 가슴아픈 사연의 연속이었던 저의 지나온 삶은 15살때 7남매를 두고 어머니가 가슴에 한을 품으신 채 돌아가실 때 부터 아니 그런 결과를 만든 아버지와 한 여인의 무책임한 행동에서 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갈데가 없는 모녀를 집에 받아들이고 딸처럼 거두어 주던 어머니는 돌보아 주던 사람에게 남편을 빼앗긴 채 몇 년 동안을 서로 자식을 낳아가며 한 집에 섞여 살아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7남매를 기르면서도 자식들에게 고향 한번 쳐 보지 못하시는 무남독녀 외동딸로 곱게만 자란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다른 여인에게 빼앗긴 후에 경제권마저 없어진 어머니는 오직 어린 자식들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자기를 배신한 사람들과 한 지붕 밑에 두 집 살림을 살면서 알고도 모르는척, 보고도 못본척 하며 살아야 했던 어머니의 가슴은 밤마다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과 낮이면 태연하게 지내야 하는 고통으로 까맣게 피멍이 들어 버렸습니다. 외할머니는 딸 같은 사람 앞에서 매를 맞기도 하며 비참하게 살아가는 어머니를 보다 못해 병을 얻어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더욱 더 불행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새엄마와 함께 들어온 또 한 분의 외할머니는 우리 가족에게는 큰 시련의 연속을 제공한 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살고있던 집을 엄마 몰래 팔고 젓먹이가 있는 엄마와 우리만 남겨둔 채 새엄마와 함께 떠나버렸을 때에는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마저 느낀 어머니는 울지도 못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간신히 아버지가 살고 계신 집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으나 새엄마로부터 문전박대를 당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다. 그날 밤 어머니는 밤새도록 울면서 제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자식들과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어머니의 말에 새엄마는 “나도 젊은 나이에 먹고 살아야 한다” 고 하며 도움을 청하는 어머니를 차갑게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 팔린 집에서 쫓겨나 잠잘곳 마저 없어서 쓰러져가는 천막집에서 가마니를 깔며 젓먹이를 데리고 습기차고 바람부는 곳에서 살면서 산후조리조차 못하고 고통을 당하던 어머니는 결국 몸과 마음에 병이 걸려서 약도 제대로 못 써보는 몇 년의 병치레를 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식들이 개밥의 도토리도 될텐데 어떻하면 좋겠느냐고 하늘만 쳐다보고 울던 어머니는 39살의 젊은 나이에 빼만 남은 앙상한 모습으로 군대가 있던 큰오빠를 그리워하다 눈도 못감고 세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소아마비를 앓고 있던 세째아들과 이제 막 젓을 떼 막내를 생각하면 어떻게 눈을 감고 죽을 수가 있었을까요? 병에 시달리며 고통을 받으면서도 자식 곁에 남고 싶어 했던 어머니는 아버지와 새엄마와 한방을 쓰면서 겪는 고통으로 자살하려고 벽속에 수면제를 모으고 계신것을 찾아낸 적이 몇번인지 모릅니다. 위로 오빠

가 두 분이 계시지만 세 딸 중 만 딸이었던 저는 어머니의 고통과 한많은 세월을 옆에서 지켜보며 같이 울면서 살았기 때문에 나를 고명딸이라고 부르며 끔찍하게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를 한없이 미워하고 저주하며 그 사랑을 차갑게 거부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말대꾸 한 번 못하고 사는 불쌍한 어머니가 야속하고 바보같이 보였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가슴에 배신

이라는 비수를 꽂고 39살의 나이에 자식을 두고 눈도 못 감고 세상을 떠나게 하고 우리 7남매의 일생을 비극의 어둠으로 몰아 넣은 아버지와 새엄마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는 못 속인다고 그래도 나의 아버지 이기에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미워하면서도 표현하고 싶지 않은 아버지

사랑 때문에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야 하는 매마른 여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차라리 엄마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런 일도 없었겠지만) 우리 집에 들어왔다면 평생을 고마운 마음으로 잘 모실 수 있었던 새엄마도 한편으로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잘해보자고 하면서도 어린 남동생과 여동생들 사이에서 동생도, 누나도, 언니도 아닌 15살 짜리 엄마가 되어야만 했던 나는 더구나 새엄마와 할머니 그리고 새엄마의 두 아이들 틈에서 중간에 태어나 이리채이고 저리채이며 그 아이들 틈에서 인격이 없는 사람으로 희생되어 버리는 동생들을 보아야 했고, 그때문에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들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자 밥 색깔이 다른 도시락을 보고 저는 울면서 아버지에게 대들고 새엄마와 할머니에게 이 죄를 어떻게 받으려고 이러느냐고 울고 불고 하였지만 모든 것은 저의 능력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양심 없는 어른들이 저지르는 죄를 심판하기에는 나이 어린 저의 반응은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인정할 수 없어서 반항하면서도 나의 마음은 지쳐서 너무나 힘들고 외로운 이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해 보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행복을 찾아서 사랑이라는 품속에서 시간의 제한조차 받지 않고 쉬고 싶었습니다.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탓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사람은 나를 너무나 힘들고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하느님을 원망하며 울었습니다. “하느님, 당신은 정말 계시는 분이십니까? 제가 무엇을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기에 이렇게 감당키 어려운 시련만을 주시는지요? 저는 행복하게 살아 볼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까? 정말 이렇게 하셔야만 되는지 당신은 저에게 너무나 무자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시련을 겪고 있을 때 성모님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더는 그대로 두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셨는지 제 동생을 통해서 주님이 계심을 알게 해 주시고 기도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때 구로동 본당에 계시던 이종효 신부님은 저희 가정을 신앙으로 인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남편과 저 그리고 딸아이까지 온 가족이 영세를 받

았고 자연유산으로 임신이 안되던 저는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은혜를 받고 아오스팅이라는 이름으로 봉헌했습니다. 영세를 받은 후 구역장의 임무를 수행하며 여러 가정의 어려움을 보면서 저의 아픔을 기도속에 묻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짧은 신앙생활로 나의 상처들을 잊기에는 미움과 증오의 뿌리들은 너무나 깊이 박혀있었나 봅니다. 사랑을 갈구하면서도 사랑을 모르고 살아 온 저는 어느새 마음이 다시 굳어져 결국은 20년의 차가운 냉담 생활로 되돌아 가면서 제 마음 속에서 스스로 제일 불쌍하고 가슴아픈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버렸습니다. 나는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야 합니까?” 하며 다시 하느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속에 살아가는 동생들과 오빠를 보면서 서로 감싸주며 이해하고 사랑을 베풀며 감사하는 행복을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애원하며 기도했습니다. 너무나 힘들때는 신앙이라는 것이 사치스럽게 생각될 때도 있었습니다.

가까운듯 하면서도 멀게만 느껴지는 하느님의 사랑과 품에 꼭 안아주실것만 같은 성모님의 손길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시련이 올때마다 좌절감에 혼자 울고 지낸 적도 많았고, 세속 친구들과 어울려 모든 것을 잊어보려고도 했으나 제 가슴 속의 허전함은 더욱 더 저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에 살고있는 여동생이 미국에 와서 메주고리예를 갔다 오면 어떻겠느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그곳에 간들 무엇이 달라질까? 하는 마음이었으나 웬지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하니 동생은 메주고리예에서 있었던 일들을 진지하게 말해주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알게 모르게 받아왔던 마음의 상처들이 성모님의 사랑을 느꼈을때 모두 치유되었고 육신의 엄마는 안계셨지만 천상의 엄마인 성모님은 무한하신 사랑을 부족함 없이 주고 계셨는데 오직 본인이 몰랐을 뿐임을 알게 되었다고 하며 메주고리예의 8박 9일을 울면서 지내다 왔으며 그 눈물은 예전의 눈물처럼 슬픔과 외로움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으며 자신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치유의 시간이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제는 돌아가신 엄

마가 보고싶지만 자신이 엄마 없이 살아왔다는 생각은 전혀 안드는 것이 신기하기만 하다고 하며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안다면 너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릴 것” 이라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을 보살피면서 몇 배나 더 큰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고있는 언니를 치유시켜 주시어 언니의 남은 시간들을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울면서 성모님께 기도 드렸다는 말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큰일났구나, 이 사람들이 제 정신이 아닌것 같다.” 는 생각을 했지만 이미 미국에 와 있는 저는 어쩔 수 없이 메주고리예를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밤늦게 도착한 첫 날, 성당에 들러서 성모님께 인사드리고 짐을 풀 후, 잠이 들었습니다. 이른 새벽 몇 시쯤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설명할 수 없는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것 같은 힘에 이끌려 무조건 뛰쳐 나갔습니다. 속으로는 “영어도 못하고 돈도 없는데 이리다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하나”하고 걱정이 되었지만 마음과는 달리 내 몸은 어디를 향해 무조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새벽길을 달리면서 이곳이 어디인지 알 수는 없지만 성모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실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보니 저멀리 사람들이 보이는데 같았습니다.

그쪽에서도 저를 향해 오고 있었는데 그분들의 목에 걸린 스카프를 보고 같은 순례팀임을 알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저에게 발현산이 어디냐고 물으시길래 나는 지금이 몇시이며 이곳이 어디쯤인지도 모른다고 하였던니 지금은 새벽 3시인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어두운 새벽에 겁도없이 어디를 가느냐고 하며 오히려 나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길에서 우연히 만난 예수님같은 할아버지의 안내를 받으며 일행과 함께 비온 뒤의 발현산을 넘어지고 옆어지고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동생의 작은 신발을 신고 왔기때문에 발이 짓물러고 아팠으나 마음은 한없이 편하고 기뻐합니다. 그후로도 짓물러져 디딜 수 없을만큼 아픈 발로 십자가산과 발현산을 오르내리며 평생을 무겁다고 울면서 지고 온 나의 십자가가 너무나 단순하고 가벼운 십자가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활원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지난 과거를 모두 잊어버리고 앞으로는 주님과 성모님의 배려하심으로 절대로 또 넘어지는 일 없이 잘 살아주기를 두 손 모아 빌었습니다. 오아시스 수도원의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의 고통에 무관심했던 저의 이기심을 뉘우치며 많이 울었습니다.

메주고리예를 찾아오는 순례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성모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애쓰는 비스카를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으며 요조 신부님의 안수를 받은 후 평화를 맘껏 느끼며 편안히 쉴 수 있는 은혜도 체험했습니다.

메주고리예에 있는 동안 미국 비자를 못받아 혼자 집에있는 남편을 생각하며 “성모님, 저의 남편 요셉도 이곳에 불러주시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 왔는지를 알게 해 주시고 세속 생활에만 열중하지 말고 가족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예수님께 기도 드릴 수 있는 남편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열심히 기도드렸습니다. 며칠 후, 한국의 남편에게 전화를 하니 “여보, 나 비자 나왔어”하는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며 불러주시는 성모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새벽길에서 만난 자매님들과의 즐거웠던 시간, 안상익, 류혜옥 신부님의 깊은 배려로 새로운 세상을 보고 믿게된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후 뉴욕에 온 남편과 함께 동생부부의 배려로 퀸즈성당에서 주관하는 기초 성령세미나를 갔는데 그곳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했고 남편도 나도 한없는 눈물을 부끄러운줄 모르고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 남편과 저는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며 마음깊이 뿌리내린 불신과 미움의 뿌리를 없앨 수 있었습니다. 주님과 성모님이 아니시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후 남편과 함께 메주고리예 순례를 또 가게 되었습니다. 지도신부님 이셨던 임언기 신부님, 김기수 신부님의 영적 말씀과 겸손하신 사랑으로 우리 자신이 주님의 사랑받는 딸과 아들임을 알았습니다. 십자가산과 발현산을 오르내리며 변화되어가는 남편을 보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를 드렸고 순례일정의 하나인 치유예절 때 임언기 신부님, 김기수 신부님의 안수를 받고앞으로 남은 우리들의 생애를 성모님과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 십자가산을 올라갈 때 그곳에 있는

12차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성모님 저도 다른 순례자들처럼 마음에서 우리나라는 행복한 미소를 가질 수 있게 해 주세요.” 하고 기도드릴 때, 웬지 태양을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태양을 보니 태양이 빙빙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속에서 ..... 그 속에서 성모님의 얼굴의 저를 보고 활짝 웃고 계셨습니다. 성모님의 얼굴을 쳐다보며 저도 모르게 한 점 티도 없는 밝고 행복한 마음으로 웃음을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깊이 평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루 2갑의 줄담배를 피우던 남편이 담배를 끊고, 더욱 놀라운 것은 새벽이면 일어나 목주 15단을 비치면서 낮에도 목주를 손에 꼭 잡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옛날 레지오 단원이었을 때, 회합 때 하는 목주기도가 길고 지루해서 목주기도가 다 끝날 즈음에 마지못해서 들어가곤 하던 남편이 대중가요는 가수처럼 불러도 미사때 하는 성가는 꿀먹은 벙어리같았던 남편이, ‘주여 임하소서’ 를 시도 때도 없이 부르고 또 종이에 쓰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마음 속에는 “얼마나 같까?” 하는 불신의 잔뿌리가 남아 있었는데 새벽 6시 반 미사를 하루도 안 빠지며 성모님께 의탁하여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자 하는 남편이 정말 너무나 사랑스럽고 고마울 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죄를 대신 하시어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셨듯이 나도 이제는 세속생활에 빠져 정신없이 살아왔던 남편이 저토록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신부터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으며 아버지도 용서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미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처속에서 보낸 지난 시간들이 안타까울 뿐이었으며, 나는 더이상 불행한 여인이 아니라는 확신을 마음깊이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결될 수 없는 현실의 문제를 갖고 가슴아파 하며 울고 사는지를 알게되니 용서하면 잊어버릴 수도 있는 지난 옛날의 과거에 얽매며 가슴앓이를 하며 살아왔던 제 자신이 바보같은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픔과 시련의 시간들이 저를 주님과 성모님께 인도해 준 것이라면 비록 지난 시간들이지만 내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겠노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

제 조금은 알것 같습니다. 동생이 말하는 성모님의 말씀을 ....

사랑하는 동생 부부에게 표현할 수 없는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새벽길에서 만난 분다, 수산나 자매님과 모든 형제 자매님들,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봉사를 하고 계시는 성령세미나 봉사자님들, 김인성 신부님과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가 어디서 살아가든지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전하며 주님과 성모님을 위해 평생을 바치기로 약속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성모님과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이제는 지난 과거를 다 버리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나의 기억속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예수님과 성모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어 기쁨과 은혜가운데 생활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광과 찬미 받으소서.

- 이 마리아 -

## 편집실에서 전하는 소식

### 웨인 와이블씨의 치유와 은혜의 밤

롱아일랜드 그레이트넥 성당(주임신부:김한기 시몬)에서는 7월 6일과 7일 이틀동안 메주고리에 책의 저자인 웨인 와이블씨와 함께하는 치유와 은혜의 밤 행사가 있었습니다. 평화의 모후 센터 USA(대표:남홍익 그레고리오)가 주관하고 그레이트넥 성당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각 본당에서 약 1천여명 교우들이 모여 메주고리에 성모님 메시지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첫째날 미사후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입장식과 성모님의 머리에 화환을 씌여드리는 예절때 기쁨의 흐느낌이 이곳 저곳에서 들리기도 했습니다. 둘째날에는 촛불 봉헌과 함께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웨인 와이블씨는 이날 강연을 통해 이시대에 주시는 성모님의 메시지는 큰 은총이며 축복이기에 모두 마음의 문을 열고 하느님께 회심하여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한사람 한사람이 봉헌된 삶을 살아가는, 성모님의 부르심에 평신도들의 응답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청소년들과의 만남에서도 주변에 흔하게 있는 마약과 술, 담배가 어떻게 청소년들의 영혼과 장래를 해치는지를 설명하고 본인 스스로의 노력이 없이는 비참한 결과를 갖게 될 뿐이며 그러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청소년들이 모르는 것이 더 큰 위험이라고 했습니다. 참석한 청소년들이 처음과는 달리 메주고리에 대한 질문도 하면서 관심을 보였고 준비된 영문 메주고리에 책을 모두 구입해 가는 등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본지 9월호에는 웨인 와이블씨의 '치유와 은혜의 밤' 강연 내용을 실도록 하겠습니다.

### 가라반달 목격증인을 위한 기도

가라반달에서 성모님의 발현을 목격한 4명의 아이들 중 한 사람인 마리로리 씨가 불치의 병으로 몹시 위독하다고 합니다. 마리로리 씨는 가라반달에서 주신 성모님의 메시지 중에 인류의 회개를 위해 주시는 기적의 표징과 경교가 일어날 해당 년도를 알고 있는 목격증인입니다. 지난 7월 15일은 마리로리 씨의 치유를 위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함께 기도한 날이기도 합니다.

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의미를 좀 더 잘 깨닫고 모든 것이 하느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모든 영광과 찬미를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현 20주년때 있었던 일들...

성모님 발현 20주년 때 대구의 성모여행사와 함께 메주고리에로 순례 오셨던 부산에 사시는 정해진 분도(78세) 할아버지께서는 51년도에 있었던 6.25전쟁 당시, 폭탄에 의한 심한 화상을 당하시어 형님은 돌아가시고 분도 할아버지는 얼굴과 온 몸에 심한 화상을 입으셨는데 더구나 언덕에서 굴러 떨어져 왼쪽 다리를 펴 수가 없는 상태로 평생을 심한 고통중에 사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임언기 신부님이 지도하시고 김기수 신부님과 대구에서 오신 토비아 신부님이 함께 해 주신 기도회에 참여하셨다가 치유예절때 구부러져 있던 왼쪽 다리가 펴지고 심한 위장병으로 고통받으시던 것도 말끔히 치유되는 은총을 받으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너무나 좋으신 나머지 경충경충 뛰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시고 춤도 추시며 이제는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다고 싱글벙글 환한 웃음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분도 할아버지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님과 성모님께서 베푸시는 치유의 은혜를 맘껏 누리시고 행복과 기쁨속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기도드리며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성모님 20주년 발현 때 메주고리에에서 있었던 일들은 지면상 9월호에서 좀 더 자세히 실도록 하겠습니다.

### “기도 에 드리겠습니다.”

평화의 모후센터 USA와 미주 가톨릭의 기도 중재단에서는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지향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보내주시는 모든 기도지향을 위해 기도해 드리는 동시에 메주고리에에서 성모님을 매일 뵈고있는 목격증인 비스카에게 보내져 성모님의 축복을 청하며 봉헌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문 보내실 곳>

#### 평화의 모후 센터 U.S.A.

22 Round Swamp Rd. Huntington, NY11743

Web site : [www.prayerroom.com](http://www.prayerroom.com) 에서

prayer request 를 이용하시거나

e-mail : [request@prayerroom.com](mailto:request@prayerroom.com) 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Tel.(631)367-6191 / Fax.(631)367-6194

# 메주고리에 9월 13일 순례 안내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나는 너희에게 아직도 불신앙의 어둠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밝혀주고  
그들의 마음을 내 아들 예수님의 평화로 가득 채워주기 위하여  
나의 빛이 되어달라고 너희를 부르고 있단다.  
나의 부름에 응답하여 주어 고맙다.

순례 일정 : 2001년 9월 13일 부터 21일까지 (8박9일)

지도 신부 : 김택구

순례 경비 : \$1450 - 뉴욕 JFK 출발 기준

로마와 아씨시를 경유할 때는 : 9월 11일부터 21일까지 (10박11일)

순례 경비 : \$1990 - 뉴욕 JFK 출발 기준

연 락 처 : 남 그레고리오 Tel.(631)367-6191, Fax.(631)367-6194

평화의 모후 센터 USA 에서는 성모님의 도우심을 받아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느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 갈 수 있는 신앙채신을 위한 피정과 순례만을 하고 있으며 일반 관광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대식 숙박시설을 갖춘 2인 1실, 또는 3인 1실과 함께 1일 3식(아침, 점심, 저녁)을 제공합니다.
- 메주고리에 순례 일정에는 유럽에서 긴 역사와 견고하기로 유명한 성곽도시로써 아드리아 해안가의 아름다운 경치로 널리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가톨릭을 고수해 오며 1700년 동안이나 썩지않고 있는 실반 성인의 기적의 유해가 있는 유명한 신앙의 유적지인 Dubrovnik성지순례와 Split에 있는 성지순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메주고리에 순례를 원하시는 신부님과 수녀님들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0명 이상의 그룹은 원하시는 날짜에 순례일정을 정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 평화의 모후 센터 U.S.A.에서는 세계 곳곳에 발현하시어 우리들을 위하여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성모님의 소식지를 매 월 발행하고 있습니다.
- 메주고리에에 관한 서적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메주고리에에서 주신 성모님의 메시지가 1, 2, 3편의 테잎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 매 월 순례가 있으니 남 그레고리오 형제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문

평화의 모후센터 USA로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문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문들은 매 월 순례 때마다 목격증인 비스카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다른 우편물과의 분류를 위하여 편지 봉투에 “성모님께 드리는 편지” 라고 꼭 써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의 모후 센터 U.S.A.

- 1) 거룩한 공의회는 모든 평신도들이 성령의 움직임에 기꺼이 아낌없는 마음으로 응답하고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그들을 특별히 긴급하게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호소한다. -바티칸 공의회 평신도 교령 33항- 는 말씀에 응답하여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 2) 1981년 6월부터 현재까지도 메주고리에라는 작은 산골마을에 매일 발현하고 계시며 매달 25일에는 하느님의 메시지를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전해 주시는 성모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고자 합니다.
- 3)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서 깊은 체험을 통하여 사랑이 가득한 기쁨과 평화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한 알의 작은 밀알이 되고자 합니다.
- 4)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매달 첫째 토요일에 티없으신 성모 성심에 기도드리며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 메주고리에 성지순례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평화의 모후센터 U.S.A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 평화의 모후 센터 U.S.A. 회원모집 안내

성모님의 메시지 ‘메주고리에’ 100부면, 1000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이고 능동적인 복음화 운동에 적극 참여 하시고자 하는  
 한인 가톨릭 공동체 회원을 모집하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모후 센터 U.S.A.는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으로 운영됩니다.

#### 주문량

- |                                       |              |
|---------------------------------------|--------------|
| (1) 25부 <찬조금 \$25 + 우송료 \$5> .....    | 합계 \$30 ( )  |
| (2) 50부 <찬조금 \$50 + 우송료 \$5> .....    | 합계 \$55 ( )  |
| (3) 100부 <찬조금 \$100 + 우송료 \$10> ..... | 합계 \$110 ( ) |
| (4) 250부 <찬조금 \$250 + 우송료 \$20> ..... | 합계 \$270 ( ) |

\* 해당란에  해 주시고 수표 발행은 QPC U.S.A. 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문인

성명	(한글)	(영문)
주소		
전화		팩스

#### 주문처

**평화의 모후 센터 U.S.A.**  
**Queen of Peace Center U.S.A.**  
 22 Round Swamp Rd.  
 Huntington, NY 11743  
 Tel. (631)367-6191 / Fax. (631)367-6194